

삼양컴텍, 상장 후 첫 성적표... 매출·영업이익 동반 성장

- ▶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액 1,022억 원, 영업이익 184억 원...창사 이래 최대 실적 달성
- ▶ 기술고도화를 통한 신규 수주 확대로 안정적 성장세 지속 전망

<2025-11-14> K-방산 숨은 조력자 삼양컴텍이 상장 이후 첫 실적 발표에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K-방산 방탄 솔루션 기업 삼양컴텍(484590, 대표이사 김종일)이 경영 실적 공시를 통해 2025년 3분기 실적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양컴텍 3분기 매출액은 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9%의 큰 폭으로 증가하며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실적으로 입증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매출액 1,022억 원, 영업이익 184억 원, 당기순이익 133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전년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5년 실적은 당초 계획했던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실적의 주요 요인은 ▲전차 특수장갑, 장갑차 부가장갑 등 주력제품의 안정적 수주 및 납기 준수 ▲공정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및 수율 향상 등이다.

삼양컴텍 관계자는 “상장 이후 매 분기마다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며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주력 제품의 기술 고도화, 신규 수주 확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고 말했다.

한편, 삼양컴텍은 국내 대표 방탄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지난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경북 구미에 부지 매입을 포함한 약 250억 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을 진행 중이며, 완공 시 구미공장 연간 생산능력이 약 20~30%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주요 방산기업과의 협력 및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다.